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너희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과 기억에 대한 보답을 주기 위해 밥다다가 너희들과 같은 방식으로 육신을 가진 상태가 되었다. 왜냐하면 대등해진다는 것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그들에게 순종한다. 자녀들이 그를 부르자마자 그는 여기에 와서 그들과 같아진다. 아버지는 사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른 영혼의 몸에 들어온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겠느냐? 너희 자녀들 모두가 어차피 사랑을 갖고 있다. 사실 마두반에 머무는 것도 또한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다. 멀리서부터 여기로 달려오는 것도 또한 사랑의 징표다. 온전한 사랑을 갖는 것의 보답은 무엇이나? 너희들은 사랑을 갖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사랑도 갖고 있다. 아버지가 끊임없이 원하는 한 가지는 그의 자녀들 모두가 그와 대등해지는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들 모두에 대한 사랑 때문에 육신세계 안으로 들어와 육신의 형태를 취하는 것처럼 너희들 모두도 서틀리전의 거주자가 되고, 무체의 아버지의 것과 같은 모든 미덕들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사랑의 보답이라 한다. 너희들은 온전한 사랑의 보답을 하는 자들이 되었느냐? 아니면 아직 그렇게 되어야 하느냐? 너희들은 단연코 그렇게 되었지만, 등수대로다!

오늘 밥다다는 사랑을 가진 모든 자녀들의 게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게임들이 펼쳐지고 있었는가? 너희들도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한다. 이른 아침의 감로 시간에 무엇이 보였는가? 너희 모든 영혼들은 새처럼 날 수 있고, 로켓트보다도 더 빨리 날 수 있고, 음속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는데, 각자의 육신의 장소에서, 마치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 공항에 착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공항에 도착했다. 너희들 각자의 목표와 지시는 같다. 너희들의 목표는 날아서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이었고, 지시는 일초 만에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사람들은 과학 시설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모든 것이 올바른가를 확인한 다음 모든 것을 신는다. 비행기에는 석유, 공기, 음식 등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럴 때라야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아갈 것이다. 너희 브라민 영혼들의 비행기도 이륙지점에 도달하기는 했다. 지시는 일초 만에 날아가는 것이었다. 많은 이들이 뒤에 남겨졌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몸이 아니라 영혼이다”를 체크하느라 뒤쳐졌다. 어떤 이들은 “나는 지식의 화신 마스터다. 나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다” 하는 지식의 되새김에서 오는 모든 힘으로 그들 자신을 채우려 하다가 뒤쳐졌다. 어떤 이들은 그런 순수한 생각들을 가졌지만 그것의 화신이 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저 그들 자신을 채우는 둘째 단계에 걸려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을 채우는데 너무 바빠서 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순수한 생각에 몰두했지만 몸이라는 땅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몸 없는 단계에 안정할 수가 없었다. 아주 소수의 엄선된 자들만이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초 만에 날아서 서틀리전이나 무체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다른 몸에 들어갔다가 떠나는 것처럼, 지고의 영혼이 다른 이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산 죽음을 죽은 위대한 영혼들인 너희 브라민 영혼들도 또한 너희 자신의 몸을 드나들 수 있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카르마 요기가 되고, 원할 때마다 지고의 거처의 요기나 서틀리전의 요기가 되어라. 너희들은 세 세상의 주인들이 되었으므로 원할 때는 언제라도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때에 너희들은 세 세상 모두의 주인들이고, 주인은 자신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그의 장소로 갈 수 있다.

많은 자녀들의 한 가지 생각이 바바에게 와 닿았다. 그들은 “아버지는 굴레에서 자유로운 반면 나는 몸의 굴레와 카르마의 굴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밥다다는 너희에게 묻는다: 너희들은 아직 너희의 몸을 비롯한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느냐? 너희 자녀들 모두가 했던 첫 약속은 “몸과 마음과 부가 모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입니다.”이다. 그것들이 너희의 것이 아니고 바바의 것인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들에 묶일 수 있느냐? 밥다다는 그것들을 그저 너희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다.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산 죽음을 죽었고 너희의 83생의 계정을 마쳤으니 이제 이것은 너희의 새로운, 84번째 생이다. 너희들은 이 생을 다른 어떤 생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신성한 생은 굴레가 아니다: 이것은 관계다. 이것은 너희가 어떤 카르마의 굴레를 갖는 생이 아니고 카르마 요기가 되는 생이다. 이 아로키의 신성한 생에 너희 브라민 영혼들은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이다. 너희가 “당신의 것”을 “내 것”으로 바꿀 때 의존적이 된다. “나의 첫째 계정, 나의 첫째 산스카라.” 이 “내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만일 너희가 그 몸을 빌렸다는 의

식을 유지함으로써 자유롭게 지낸다면 일초 만에 날 수 있다. 너희들은 어디든 앉혀지는 곳에 앉고 무엇이든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묶여있는 영혼이나 아니면 카르마에 묶여 있는 영혼이나? 아버지는 또한 너희에게 카르마를 행하라는 지시를 했다. 너희들은 자유롭고, 너희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 그것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저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어머니 사라스와티의 특별한 다르나였다: “모든 지시를 하는 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앞 번호를 차지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라. 너희들은 “나는 내 카르마를 청산해야 한다, 나는 내 카르마에 묶여 있다, 나는 나의 산스카라에 묶여 있다, 나는 또한 집회에 묶여 있다”는 낭비적인 생각의 거미줄이 너희의 마음에 들어오게 허용한다.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거미줄에 너희 자신을 가두고 나서 풀어달라고 요청한다! 바바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미 자유롭다. 그러나 너희가 놓아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너희들은 굴레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면 굴레에 묶여 있는가? 너희들은 이미 몸을 벗고서 산 죽음을 죽었다. 너희들은 그 낡은 몸을 단순히 세계에 봉사하기 위해 입었다. 아버지는 그 몸에 힘을 채워주어 그것이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의 책임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너희 자신의 책임으로 만드느냐? 너희들은 자신의 책임을 돌보지 않으면서도 그걸 놓아주지 않는다! 책임을 놓아버려라. 즉, “내 것”이라는 의식을 놓아버려라! “나의 노력, 나의 의도, 나의 봉사, 나의 터칭, 나의 미덕 등은 아주 좋다! 나의 처리능력은 아주 훌륭하다! 나의 결정하는 힘은 아주 좋다! 나의 이해는 정확한 반면 다른 모든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이런 “내 것”의 의식이 왔느냐? 이것은 왕족다운 형태의 마야다. 이 마야를 정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일초 만에 물질의 정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물질의 지원을 받겠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물질을 정복한 자들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쉽게, 자동적으로 일초 만에 몸 없이 되라는 지시를 따를 수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어떤 게임을 보았느냐? 너희들은 모두 “내 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매우 영리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술에 걸려서 뭔가를 한다면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이 왕족다운 마야도 마술을 걸고, 너희들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카르마에 묶여있다고 느끼던 데서 너희 자신을 카르마 요기로 간주해라. 이제 모든 굴레에서 자유로워져서, 너희 자신을 아버지 한 분과만 모든 관계를 맺는 것으로 간주할 때는 끊임없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몸 없이 되는 연습을 해라. 너희가 아무리 봉사에 바쁘더라도, 또는 아무리 많은 일이 너희들을 끌어당기더라도, 또는 설령 너희의 지각이 그 일로 매우 바쁘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에는 몸 없이 되는 연습을 해라. 너희의 봉사가 정확할 때는 그 봉사의 굴레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요그 욱트하고 욱티욕트한 봉사자는 봉사하는 동안 끊임없이 초월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할 봉사가 많기 때문에 몸 없이 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것이 너희의 봉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관리자이고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연습을 해라. 마지막 순간의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가질 카르마티트 단계를 갖는 연습을 해라; 그럴 때라야 너희가 “당신의 것”을 “내 것”으로 바꾸지 않았다고, 너희에게 맡겨진 보물들에 대해 부정적하지 않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알겠느냐? 너희가 이따금씩 생각의 교통통제를 하는 것처럼 또한 마지막 순간의, 극단적인 때의 너희의 단계도 경험해라. 그러면 끝에 가서 너희가 우등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원할 때에는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성질과 산스카라의 끊임없는 관리자인 자들에게, 몸의 의식을 초월해 있는 자들에게, 세계를 드높이는 세계 시혜자인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와 봄베이 지구와 푸나 지구와의 만남:

1. 행운의 별이 너희의 이마 위에 끊임없이 빛나는 것이 보이느냐? 아니면 때로는 마야의 구름이 별 앞에 오느냐? 구름이 있을 때는 별들이 감춰지고, 구름이 없을 때는 별들이 계속 아름답게 빛난다. 너희들의 행운의 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빛나느냐 아니면 구름이 그 앞에 오느냐? 너희가 브라민이 되자마자 너희의 별은 빛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별 앞에 구름이 오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너희 별의 광채가 감춰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한다. 사진이 찍힐 때 만일 구름이 나타나면 사진이 그리 좋지 못할 것이다. 사진이 선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너희의

빛나는 별 앞에 구름이 나타나면 너희가 어떻게 비전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아버지를 드러낼 자들이다. 즉,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통해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구름을 통해 어떻게 비전이 보여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언제 비전을 주려느냐? 파멸이 일어날 때이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오랜 기간 동안 구름을 없애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구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비전을 주려고 서 있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면 너희의 전체 프로그램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걸 연습해서 어떤 구름이라도 멀리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과학은 폭풍의 방향이나 진로를 바꿔서 산 쪽으로 가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도 과학은 완전하지 않다. 과학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다; 인간의 지시에 근거해 있는 한 과학은 계속 요동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아버지의 슈리마트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너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장애를 없애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 모두가 노력하고 있지만 너희의 노력의 속도는 어떠하냐? 만일 뭔가 1초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2시간 걸린다면 너희들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만일 시험을 볼 때 질문에 대해 옳은 답을 하긴 하지만 제 때에 하지 못한다면 합격하겠느냐 아니면 불합격이겠느냐? 나는 움직여 나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저 매일 클래스에 가므로 규칙적이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또한 바바의 봉사도 하고 있으니, 너희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이제 너희들은 끊임 없고 쉬운 요기가 되라는 아버지의 지시를 따르는데 규칙적이고 정확해져야 한다. 아버지는 또한 이에 있어서 너희들의 출석점수를 매길 것이다. 너희들은 첫째 측면에는 출석 점수를 받지만, 둘째 측면에 출석 점수를 받아야 앞 번호를 차지할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떤 염주의 일부가 될 것이냐? 만일 너희가 오직 때때로만 이 단계에 안정해 있다면 너희가 들어가는 염주는 오직 이따금씩만 숭배되는 자들의 염주일 것이다. 너희들은 염주의 끝 쪽에 있는 구슬이 될 것이다. 너희 어머니들은 어떤 봉사를 하겠느냐? 너희들 모두 넘버원을 차지하겠느냐? 이 그룹은 넘버원 그룹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 백배, 천배, 수백만 배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류시대는 봉사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 시대다. 너희들은 뭔가를 하자마자 그 보상을 받는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중의 봉사를 해라. 이것을 통해 손들이 창조될 것이며 센터들이 열릴 것이다. 자신을 바친 손들은 매우 소수이고, 그러니 그들은 순회를 하게 하고 너희 가정인들이 센터를 돌봐라. 센터들도 이런 식으로 개설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가족이나 자식들과의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방을 하나 임대해서 그것을 돌볼 수 있다. 만일 자식들과 복잡한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너희의 집에 센터를 열 수 있다.

2. 너희들은 끊임없이 흔들림 없고 부동하게 지내느냐? 지난 사이클에 라반의 군대가 앙가드를 흔들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 비록 역경이 닥쳐왔다가 가지만 너희들의 본래의 단계는 너희가 끊임없이 전진하게 해줄 것이다. 역경을 좇아감으로써 너희들은 자신의 본래의 단계를 잃는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너희들은 높이뛰기를 해서 그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은 행운의 표시다. 시험지는 너희의 토대를 매우 튼튼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그것들은 너희를 흔들려 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체크하러 온다. 일단 너희가 앙가드처럼 강해지면 그것들은 그저 너희에게 경의를 표하러 올 것이다. 그들은 첫째로는 무서운 형태로 오고, 그런 다음에는 너희의 하인으로서 올 것이다. 그들에게 도전해서 너희가 마하비르임을 보여주어라. 물에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어떤 상황도 너희들 지식의 대양 마스터들에게 전쟁을 걸 수는 없다; 어떤 것도 너희들 위에 선을 그릴 수 없다.

3. 언제나 한 분에 대한 믿음과 하나의 의지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지하느냐? 끊임없이 하나의 의지처를 갖는 자들은 한결 같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른 어떤 다정함도 그런 영혼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런 영혼들은 끊임없이 등대이며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여나간다. 그들은 많은 다른 이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 따라서 매일, 등대로서, 너희들은 몇 명의 영혼들에게 길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브라민들의 임무이며, 사업이며, 활동이다.

4. 경험의 이미지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기.

너희들은 아버지의 미덕의 끊임없는 경험의 화신이냐? 너희들은 아버지의 미덕으로 칭송되는 모든 미덕에 경험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는 희열의 대양이고, 따라서 너희들은 희열의 대양의 파도 속

에서 움직여 나가는 경험의 화신들이다. 아버지의 모습은 끊임없이 모든 미덕을 경험하는 경험의 화신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너희들 모두 아버지를 드러낼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고의 영혼을 드러낼 정도로 위대하다. 아버지의 미덕들이 각자의 얼굴을 통해 보이게 해라. 누가 너희들과 접촉하게 되더라도 그들이 희열, 사랑, 행복을 경험하게 해라.

5. 나중에 온 자들의 행운도 남 못지 않으며, 매우 고귀하다. 어떻게 그런가? 나중에 온 자들은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을 때에 왔다. 조부모가 손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나중에 온 자들도 여기에 이미 뿌려진 것의 열매를 먹을 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참으로 많은 시설들과 이미 마련된 장소들을 갖고 있다. 다른 이들이 우유를 저었고, 너희들은 버터를 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행복하다. 끊임없이 너희의 행운과 그 행운을 너희에게 준 공여자를 기억해라. 밥다다는 언제나 말한다: 어린 아이들은 신과 같다; 그들은 신과 대등하다.

축 복: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아서 너희의 낡은 몸과 세계를 잊어라.

고귀한 합류시대 영혼들이 있는 장소는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다. 너희들은 전체 사이클 내내 그런 옥좌를 받을 수 없다. 물론 너희들은 세계 왕국이나 한 나라 왕국의 옥좌는 계속 받겠지만 이 옥좌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을? 걷고, 구경 다니고, 먹고, 잠자고? 하더라도 여전히 옥좌 위에 있을 수 있는 무한한 옥좌다. 언제나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혀진 자녀들은 자신의 낡은 몸과 육신 세계를 잊었다. 그들은 그걸 보면서도 보지 않을 것이다.

슬로건: 제한적인 이름, 명예, 자부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다.

*** 음 샐티 O M S H A N T I ***